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11월 03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명사, 한정, 추가, 목적에 관련된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조선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8급 한자의 뜻을 알고 읽을 수 있다,
 5.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국어6-2 나, 초등한자1,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100대 민족문화상징자료,
TOPIK중급

교시	수업 내용
1교시 9:30-10:20	숙제 확인 및 쪽지시험(한자, 관용어, 읽기자료)
2교시 10:20-11:20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고 이해하기
점심 11:20-11:40	
3교시 11:40-12:00	문법 수업(명사, 한정, 추가, 목적)
4교시 12:00-12:40	줌바 수업

숙제 (다음 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1. 한자
2. 관용어
3. 읽기 자료(조선 관련)
4. 어휘

***다음 주부터 생활국어 2-1 교과서 가져오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공부할 어휘>

건장하다 :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세다. 예문) 대원이는 건장하다.

호리호리하다 : 몸이 가늘고 날씬하다.

염두에 두다 : bear in mind, keep in mind

이음새 : 두 물체를 이은 모양새 seam

재단하다 : 옷감 등을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다. 예문) 비단을 재단하여 한복을 만들었다.

수공비 : 손으로 하는 일의 품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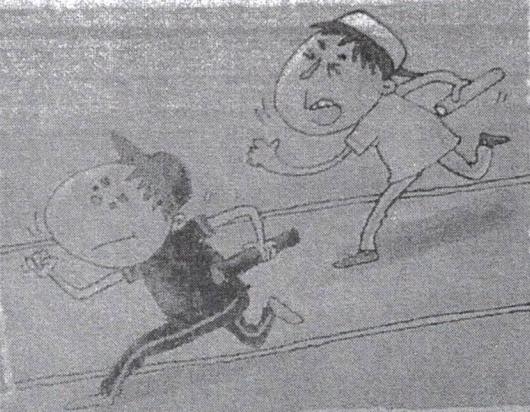
명심하다 :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 두다.

青

푸른 청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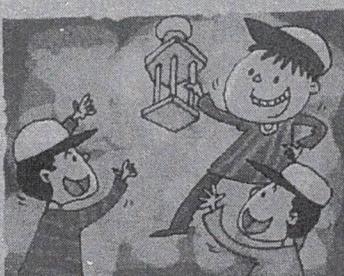
흰



어디에 쓰일까요?



青과물 시장에서 싱싱한 과일을 샀습니다.



올해 운동회에서는 白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상막은 퉁퉁!
한자는 쟁쟁!



소리가 같은 글자예요!

★ 둘 다 '백'이라는 같은 소리를 가진 한자지만, 뜻은 서로 다릅니다.

白

흰 백

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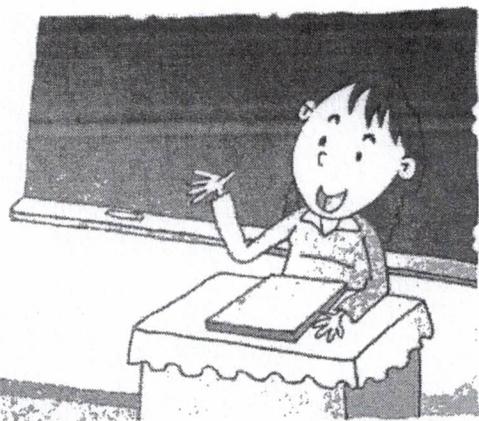
일백 백

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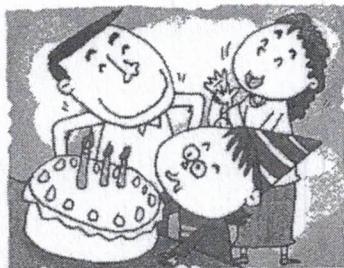
먼저 선

生

날 생



졸업하는 先 배들을 위해 축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 生日(생일)입니다.

순서를 알아봅니다

青

白

先

生

대화



에 릭: 며칠 후면 추석인데 지영 씨도 고향에 가요?

지 영: 네, 그런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요. 어휴.

에 릭: 왜 한숨을 쉬어요?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면 즐겁고 좋지 않아요?

지 영: 즐겁고 좋기는 하지만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제게 언제 국수 먹게 해 주 느냐고 물거든요. 올해도 그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에요.

에 릭: 지영 씨 국수 만드는 솜씨가 좋은가 봐요.

지 영: 네? 그게 아니에요. 국수를 먹는다는 말은 결혼을 한다는 뜻이에요.

* 국수(를) 먹다: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대접을 받다

활용예문

- ▶ 누나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언제 국수를 먹게 해 줄 거냐는 말이다.
- ▶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올해는 국수 먹게 해 줄 거예요?
- ▶ 가: 어제 남자 친구한테서 청혼을 받았어요.
나: 그럼 이제 국수 먹게 되는 거예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추석 | <input type="checkbox"/> 답답하다 | <input type="checkbox"/> 한숨(을) 쉬다 | <input type="checkbox"/> 친척 | <input type="checkbox"/> 명절 | <input type="checkbox"/> 국수 |
| <input type="checkbox"/> 솜씨 | <input type="checkbox"/> 어울리다 | <input type="checkbox"/> 청혼(을) 받다 | <input type="checkbox"/> -냐고 물다 | | |

함께해요



여러분의 멋진 결혼식을 상상해 보세요.

- ❶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 ❷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어요?
- ❸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 ❹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 ❺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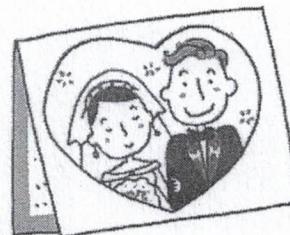
여러분의 청첩장을 만들어 보세요.

♡ 모시는 말씀 ♡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일시 : _____
- 장소 : _____
- 약도



한 걸음 더

▶ 날(을) 잡다(☞)

날짜를 정하다

이번 여름에는 날 잡아서 제주도에 가는 게 어때요?

▶ 시집(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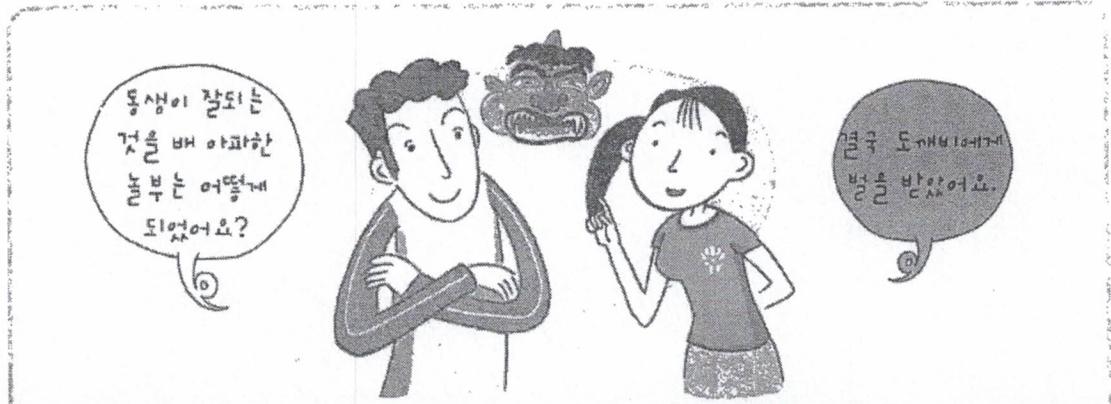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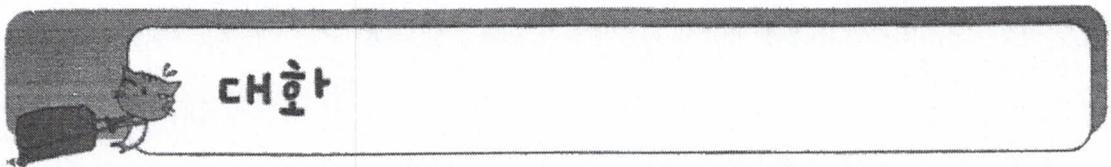
여자가 결혼하다

이모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 장가(를) 가다(☞)

남자가 결혼하다

남자들은 예쁘고 마음씨 착한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어한다.



마리오: 아사코 씨, '홍부와 놀부'라는 옛날이야기 알아요?

아사코: 욕심 많은 형 놀부와 마음씨 착한 동생 홍부의 이야기 맞지요?

마리오: 네, 박에서 도깨비가 나오는 부분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아사코: 도깨비가 나와요? 오래 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마리오: 도깨비가 욕심 많은 형에게 벌을 주잖아요.

아사코: 아! 이제 생각났어요. 놀부는 동생이 부자가 된 것을 배 아파했지요?

그래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고요.

마리오: 맞아요. 사실은 저도 아사코 씨가 한국어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때마다 배가 아팠어요.

아사코: 하하하, 그랬어요? 마리오 씨, 도깨비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것에 질투가 난다

활용예문

- ▶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 남자를 보니 배가 아파요.
- ▶ 한국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 ▶ 가: 옆집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요.
나: 정말이에요? 축하할 일이지만 솔직히 배가 좀 아픈데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욕심 | <input type="checkbox"/> 마음씨 | <input type="checkbox"/> 박 | <input type="checkbox"/> 도깨비 | <input type="checkbox"/> 부분 | <input type="checkbox"/> 벌 | <input type="checkbox"/> 배 | <input type="checkbox"/> 일부러 |
| <input type="checkbox"/> 제비 | <input type="checkbox"/> 부러뜨리다 | <input type="checkbox"/> 속담 | <input type="checkbox"/> 복권 | <input type="checkbox"/> 당첨되다 | <input type="checkbox"/> 솔직히 | <input type="checkbox"/> -도록 | |

함께해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의 그림을 보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정직한 행동으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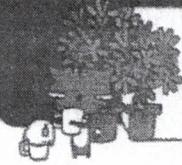


한편 나무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배 아파하던 나쁜 나무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더

- ▶ 배꼽(을) 잡다(今) 너무 우스워서 배를 잡고 웃다
어제 본 영화는 너무 재미있어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 ▶ 배(가) 부르다(今) ①아쉬울 것이 없다 ②임신하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아이들도 있는데 음식을 버리다니 배가 많이 불렀구나.
- ▶ 배 ◉
 -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 '나주 배'가 맛있기로 유명해요.
 - 살이 찌서 몸무게가 두 배나 늘었어요.

15 국수(를) 먹다 16 배(가) 아프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국수를 먹다

날을 잡다

배가 아프다

배꼽을 잡다

1 가: 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 봤어?

나: 응. 너무 재미있어서 _____고 웃었어요.

2 가: 왜 그렇게 늦게 _____?

나: 결혼을 많이 하는 달이라서 결혼식장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3 가: 승우 씨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다지요?

나: 네, 나보다 학점도 좋지 않은데 정말 _____.

4 가: 언제까지 연애만 하실 거예요?

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을해 안에 _____.

5 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가끔 _____ 때가 있어요.

나: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6 가: 언제쯤 _____?

나: 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군뜩같지만 좋은 사람이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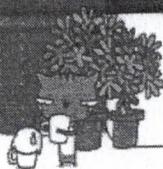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15_ 국수(를) 먹다 16_ 배(가) 아프다



이야기해요

국수(를) 먹다 / 배(가) 아프다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케빈: 민지 씨, 무슨 일로

정장을 입었어요?

정말 예쁜데요.

민지: 오늘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케빈: 그래요? 신랑과 신

부는 어땠어요? 물론 멋있고 아름다웠지요?

민지: 네, 친구 신랑이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아직 남자 친구도 없는데 친구는
멋진 남자와 결혼하니까 배가 아파 죽겠어요.

케빈: 배가 아파요?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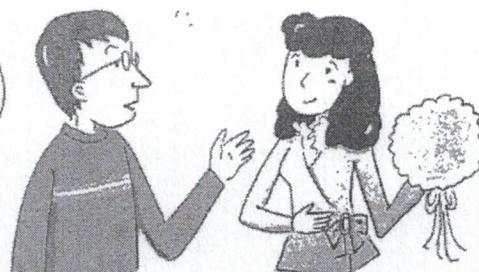
민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질투가 난다는 뜻이에요.

케빈: 아, 몰랐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민지: 그리고 열렬결에 부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언제 국수를 먹게 해줄 거냐
고 물어 봐서 곤란했어요.

케빈: _____

민지: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민지는 무슨 일로 배가 아팠어요?
- 2 민지는 부케를 받고 왜 곤란해 했어요?
- 3 여러분은 친구의 좋은 일에 배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거북선에도 화장실이 있었을까?

017

거북선

1592년 임진년 4월, 이순신 장군은 왜구의 침략을 미리 예상하고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조선 태종 때부터 '귀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우연히 귀선의 설계도를 본 이순신 장군은 나대 용에게 거북선의 설계를 맡겼지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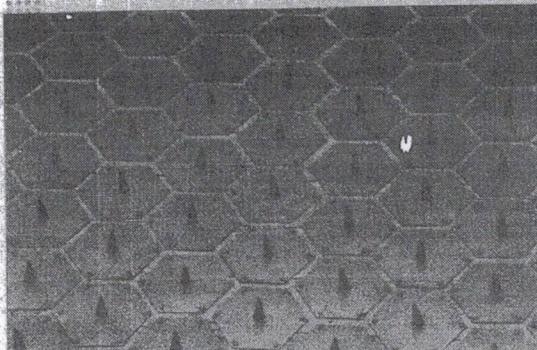
:: 거북선의 뱃머리에는 용 머리를 달았고, 꼬리는 거북 꼬리 모양 이었다.

:: 거북선 위에는 적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무판 위에 철판을 덮고 수백 개의 철침을 박아 놓았다.

:: 거북선 위에는 두 개의 돛을 달 수 있었다.

:: 거북선의 좌우에는 16~24개의 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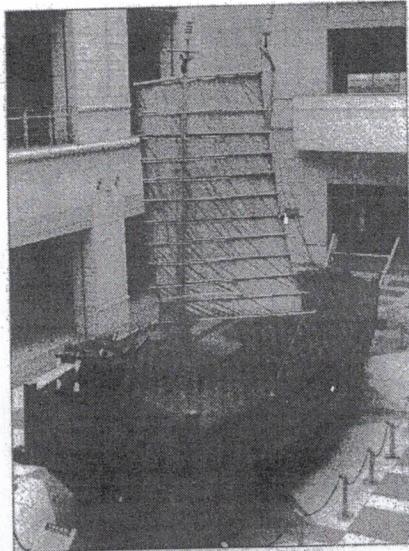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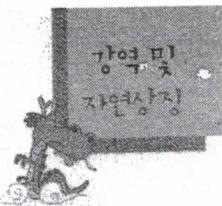
:: 거북선의 옆과 앞뒤에는 포가 있어 사방으로 대포를 쏠 수 있었다.



▲ 적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배 위에 박아 놓은 철침.

거북선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

었어요. 그 방에서 병사들은 교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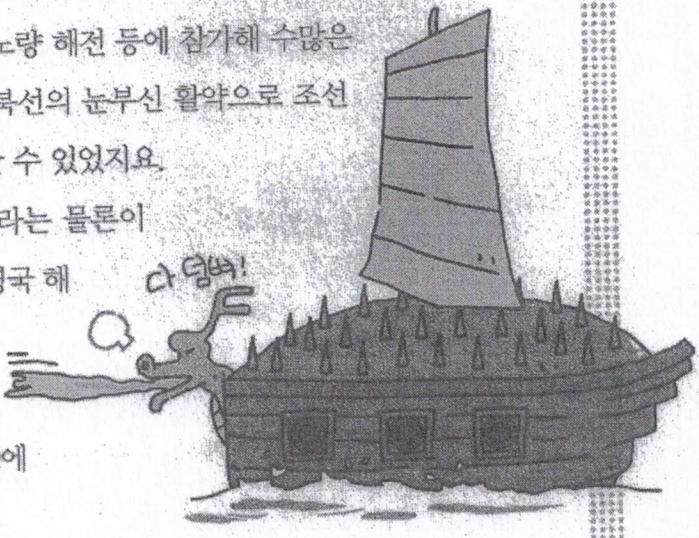


▲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조선 시대 거북선 모형.

잠을 잤어요. 또한 거북선에는 화장실도 있었어요. 다시 만들어 놓은 거북선 모형을 보면 둥이 바다로 바로 ‘퐁당!’ 빠지게 되어 있는 화장실을 볼 수 있어요. 거북선은 먼 곳을 항해할 때는 돛을 사용했는데, 돛을 자유자재로 뉘었다 세웠다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좌우에 여러 개의 노가 있어 전투가 벌어지면 빠르게 적 진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지요.

거북선은 사천 해전에서 처음 전투에 참가했어요. 이후 거북선은 한산도 대첩, 부산포 해전, 노량 해전 등에 참가해 수많은 왜구의 함대를 무찔렀어요. 거북선의 눈부신 활약으로 조선 수군은 왜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지요.

현재 거북선 모형은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미국 워싱턴 전쟁 기념관, 영국 해사 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중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각지 역사 전쟁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수원 화성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수원 화성

수원 화성은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정조의 명에 의해 지어진 신도시예요. 수원은 예로부터 좋은 무덤터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정조는 수원에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꾸미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에게는 다른 곳에 마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곳이 바로 지금의 수원 화성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마을을 건설하고 나서 주민들이 늘어나자 도시 이름을 화성이라고 짓고 성곽을 쌓았어요. 성곽을 쌓는 일은 당시 이름을 날리던 실학자들에게 맡겼어요. 실학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탐구하던 학자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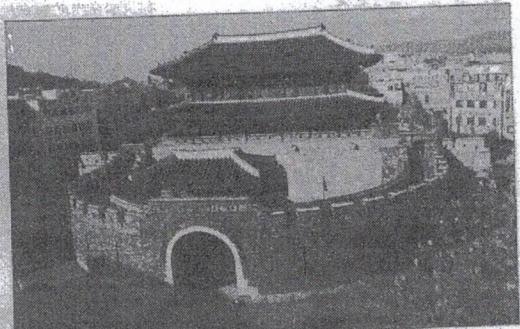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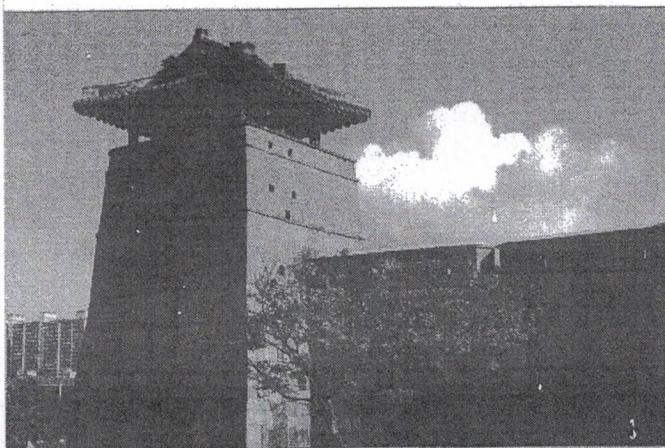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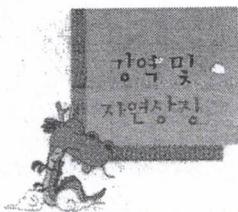
★ 수원 화성은 독특한 건축물

18세기에 완공된 우리 문화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 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뛰어난 방어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약 6킬로미터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축물의 모양과 디자인이 각기 다른 것이 특징이랍니다.

성곽의 전체 설계는 정약용이 맡았어요. 그리고 성곽의 여러

▼ 수원 화성의 팔달문.





▲ 수원 화성 서북 공심돈.



▲ 수원 화성의 화홍문.

시설에는 당시 유명했던 실학자 박지원의 의견에 따라 벽들이 사용됐지요.

이 때 정약용은 백성들의 힘을 떨어 주기 위해 돌을 나르는 기계인 ‘거중기’를 발명했어요. 거중기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힘을 적게 들이 고도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예요. 또 짐을 싣고 이동하기 쉽게 하는 ‘유형거’라는 수레를 만들기도 했어요.

수원 화성은 중국,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산성으로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요. 또 시설과 기능이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 때문에 수원 화성은 지금도 동양의 성 중에 가장 훌륭한 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현재 수원 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1997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자살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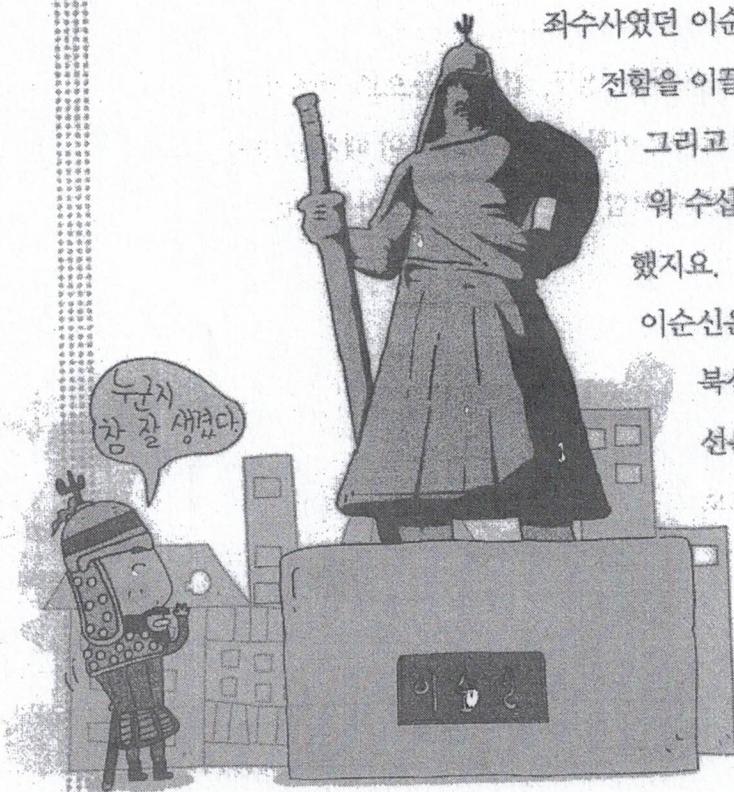
032

이순신

1592년 4월, 15만 명이 넘는 왜군이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조선은 불과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 됐어요. 조선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처지였지요.

이 때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에요. 당시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전함을 이끌고 남해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왜군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 수십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 했지요.

이순신은 이 때 철갑으로 만든 거북선을 선봉에 세웠는데 거북선은 매 전투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이순신은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 부산 해전에서 모두 왜군의 전함을 격파하고 바다를 장악



했어요. 이 때문에 왜군은 우리나라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순신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귀양을 가게 됐어요. 일본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에 이은 정유재란이에요. 이순신의 뒤를 이어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이 이끄는 조선 함대는 왜군에게 크게 패해요. 이에 나라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통제사로 임명하지요.

이순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남아 있던 배는 12척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순신은 1597년 9월 16일, 12척의 배로 133척의 전함을 이끌고 쳐들어온 왜군을 무찔렀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세계적인 해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명량대첩’이지요.

이듬해 이순신은 노량해전을 치르다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를 해요. 이 때 이순신은 투구와 갑옷을 벗고 적들의 눈에 잘 띠는 곳에 서 있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이순신이 일부러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요.

지금도 이순신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은 평소에 “나는 적이 퇴각하는 날 죽어 유감된 일 이 없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 거북선을 앞세우고 수많은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2018년 10월 27일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 아래 문장의 한자를 읽어 보세요.

1. 校歌(가) :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
2. 母校(모) : 자기가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학교
3. 教生(생) : 가르치는 실습 중인 사람
4. 教室(실) :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
5. 學年(년) : 학교 교육과정의 단계
6. 入學(입) : 학교에 들어감
7. 室外(외) : 방이나 건물 등의 밖
8. 入室(입) : 건물 안의 방이나 교실 등에 들어감

▶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1.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의 한글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2. (1번 답) 그 명칭의 뜻은 무엇인가요?
3. 한글 창제 당시 한글은 몇 글자이었나요?
4. 다음 중 세종 대에 만들어진 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월인 천강지곡 2) 석보상절 3) 동의보감 4) 용비어천가 5) 농사직설
5. 세종대왕은 농사짓는 백성들을 위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힘을 쏟았어요. 장영실, 이천 등 젊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천문관측기구인 (), 시간을 재는 해시계 ()와 물시계()를 만들게 했답니다.
* 위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자격루 혼천의 앙부일구

6. 퇴계 이황은 ()을 우리나라에 맞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은 중국 송나라 때 주희에 의해 완성된 유학의 한 갈래예요.

7. ()은 퇴계 이황이 짓고 유생을 교육하며 학문을 쌓던 곳입니다.

8. 이 사람은 조선 시대 최고의 선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예요. 정조 임금의 명령으로 수원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발명해서 공사비를 낮추고 공사 기간을 줄였지요.

9. 정약용은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을 깊이 연구한 진정한 선비 였답니다.

10. 정약용이 쓴 책과 내용을 연결하세요.

경세유표

형벌 제도에 관한 책

목민심서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

흠흠심서

정치 제도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적은 책

13. 골치(가) 아프다 14. 골똑같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골치가 아프다

골칫덩어리

굴뚝같다

1 가: 이번 휴가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게 어때요?

나: 가고 싶은 마음은 _____지만 할 일이 많아서 못 가요.

2 가: 요즘 신문에는 _____ 기사가 너무 많아요.

나: 맞아요. 신문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3 가: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네요.

나: 저 개는 우리 동네 _____지만 집을 잘 지켜요.

4 가: 연말에 일이 많아서 _____.

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5 가: 오늘도 부장님께 혼났어요?

나: 네,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_____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야겠지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문제

1~4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영업하는 일이 ()에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① 사정 ② 계획 ③ 적성 ④ 관심
2. 결혼할 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은 바로 성격이다.
① 상황 ② 자격 ③ 실력 ④ 조건
3. 박물관 관람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가 된다.
① 연구 ② 기회 ③ 결과 ④ 재주
4. 사회적인 ()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① 단계 ② 자취 ③ 변화 ④ 추억

5~8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5.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순서를 기다렸다.
① 차례 ② 결과 ③ 소식 ④ 연락
6. 웃을 때마다 반달눈이 되는 그녀의 귀여운 모습에 반했다.
① 바탕 ② 무늬 ③ 감정 ④ 생김새
7. 요즘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① 상상 ② 걱정 ③ 진행 ④ 표현
8. 그는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들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① 근무 ② 사업 ③ 임무 ④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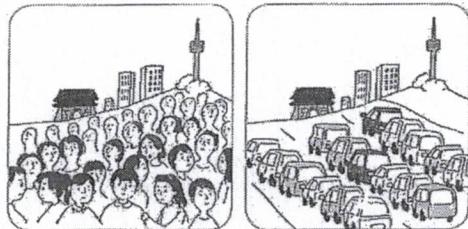
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9. 이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는 연료 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① 영향 ② 단점 ③ 강점 ④ 특징

연습

1~2 다음 그림을 보고 제시된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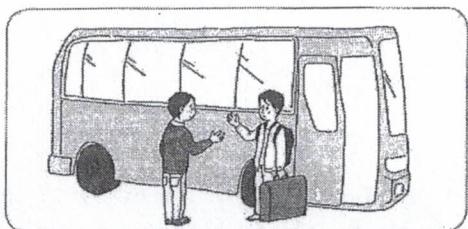
1.



-(으)느/는 데다가

→

2.



-조차

→

3~4 제시된 문법을 이용해서 밑줄 친 부분을 바꾸십시오.

'-(으)ㄹ 뿐이다'

3. 그녀와 나는 친구 사이이다.



4. 매일 배운 내용을 복습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5~6 제시된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도록'

5.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다 / 수첩에 메모를 하다



6.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다 / 서둘러서 떠나다



7~10 다음 <보기>의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으)ㄴ/는 데다가 조차 -(으)ㄹ 뿐이다 -도록 -(으)ㄹ 겸해서

7. 감기에 걸리지 _____ 외투를 입으세요. (않다)

8.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스트레스도 _____ 여행을 다녀왔어요. (풀다)

9. 아침에 늦게 _____ 스쿨버스까지 놓쳐서 지각했어요. (일어나다)

10. 남자 친구와 헤어진 그녀는 눈물만 _____. (흘리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어울리는 어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보기

마저 조차 밖에 치고

11. 내 동생은 초등학생() 키가 매우 커서 고등학생처럼 보인다.

12. 정아 씨도 고향에 돌아갔는데 수진 씨() 가신다니 너무 섭섭하네요.

13.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너() 없어.

14.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 못 풀었어요.

15~20 다음 문장을 연결하십시오.

- | | | |
|-------------------------|---|----------------|
| 15. 그는 성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 • | • 얼굴도 잘 생겼다. |
| 16.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 • | • 일찍 출발했습니다. |
| 17. 용돈을 다 써서 점심을 먹을 돈조차 | • | • 우리 모두 알고 있다. |
| 18. 학교에 늦지 않도록 | • | • 우체국에 갔어요. |
| 19. 돈도 찾고 편지도 부칠 겸해서 | • | •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
| 20. 그 일은 너를 비롯해서 | • | • 없습니다. |

문제 1

1~3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가: 저랑 같이 K-POP 축제에 가지 않으실래요?

나: 좋아요. 유명한 가수들을 볼 수 ()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① 있으므로

② 있는 김에

③ 있으나 마나

④ 있는 데다가

2. 가: 아까 철수 씨랑 같이 가던데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나: 아니요. 우리는 그냥 ().

① 친구일 뿐이에요

② 친구일 리가 없어요

③ 친구여야 할 텐데요

④ 친구일 것까지 없어요

3. 가: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나: 그곳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하기 힘들어서 호텔에만 있다 왔어요.

① 외출만큼

② 외출조차

③ 외출처럼

④ 외출이라도

4~5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4. ① 이곳은 중소 도시이고는 교통이 발달된 편이다.

②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구들마저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③ 그 아이는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잘 쓸 수 있다.

④ 기차 시간이 오 분밖에 안 남았는데 친구가 아직도 안 오고 있네요.

5. ① 일의 순서만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② 1년이 넘도록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③ 비가 많이 오는데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서 옷이 다 젖었어요.

④ 저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 데다가 값이 비싸서 사람들이 자주 안 가요.

6~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6. 가: 이번 일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필요. 제 의견을 조금 냈을 뿐인데요.

① 내기는 했는데요

② 냈으면 하는데요

③ 내기 마련인데요

④ 냈을 때문인데요

7. 가: 이번에 추천해 주신 김 군은 어떤 학생입니까?

나: 생각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성적도 우수한 학생입니다.

① 올바른 한

② 올바를 텐데

③ 올바른 데다가

④ 올바른 데 비해

8. 가: 이번 협상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나: 처음부터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금액마저 높게 책정했더라고요.

① 금액만큼

② 금액처럼

③ 금액치고

④ 금액까지

9. 가: 수요일이 장학금 신청 마감일이야. 잊어버리지 않게 잘 적어 둬.

나: 아, 그래? 알려 줘서 고마워.

① 않아야

② 않도록

③ 않기로

④ 않으려고

10 다음을 읽고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0. 가: 김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학생들이 열심히 () 도와주는 게 스승의 일이잖아요.

가: 맞아요. 저도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어요.

① 공부하도록

② 공부하든지

③ 공부하던데

④ 공부하더라도

문제2

1~5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을 () 단정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바른 태도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 ① 주는 김에 ② 준다고 해도
③ 주는 바람에 ④ 주기 위해서는

2. 쉬기도 하고 ()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제주도로 결정했다.

- ① 관광도 할 겸해서 ② 관광을 하는 대로
③ 관광도 한 걸 보니까 ④ 관광을 한다면 몰라도

3. 파리는 유명한 관광지답게 가는 곳마다 ()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 ① 유럽 사람조차 ② 유럽 사람치고
③ 유롭 사람이라도 ④ 유럽 사람을 비롯해서

4. 가: 중국 사람들은 깻잎을 싫어한다고 하던데 소소 씨는 잘 드시네요.
나: 다른 친구들은 못 먹겠다고 하는데 저는 ().

- ① 맛있는 셈이에요 ② 맛있는 모양이에요
③ 맛있게 마련이잖아요 ④ 맛있기만 하더라고요

5. 기차 시간 때문에 서둘러 나오느라고 밥을 () 좀 출출했다.

- ①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② 조금밖에 못 먹었더니
③ 조금도 못 먹었더라도 ④ 조금은 먹을까 싶어서

6~7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6. 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② 주중인 데다가 오전이라서 그런지 극장 안에는 관객이 거의 없었다.
③ 살짝 밀었을 뿐인데 친구가 넘어져 벼려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④ 9명이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는데 7명밖에 나와서 경기를 포기해야 했다.
7. ① 그는 말하기도 귀찮은지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② 어제는 신입사원의 입사도 축하할 겸해서 부서 전체가 회식을 했다.
③ 잠을 잘 못 잔 데다가 날씨조차 화창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다.
④ 이 책은 그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명도 자세해서 혼자 공부하기에 좋다.

8~10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8. 눈이 내린 데다 기온까지 낮아 도로는 온통 빙판길이었다.
① 기온치고
② 기온마저
③ 기온이나마
④ 기온은커녕
9. 사업 실패로 힘들어 할 때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 준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다.
① 가족뿐이었다
② 가족인 듯했다
③ 가족인 셈이었다
④ 가족일 리 없었다
10. 학생들이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이 표현을 이용해 다양한 연습을 하였다.
① 사용할 수 있거든
② 사용할 수 있기에
③ 사용할 수 있도록
④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